

# 다양한 소비자 니즈 적합한 쇼핑백 · 지대 생산

국제감각 갖춘 대표기업 성장 희망

포장의 여러 기능 중에서 제품을 표현하고, 보호하고, 운반하는 기능을 한번에 갖춘 것이 바로 쇼핑백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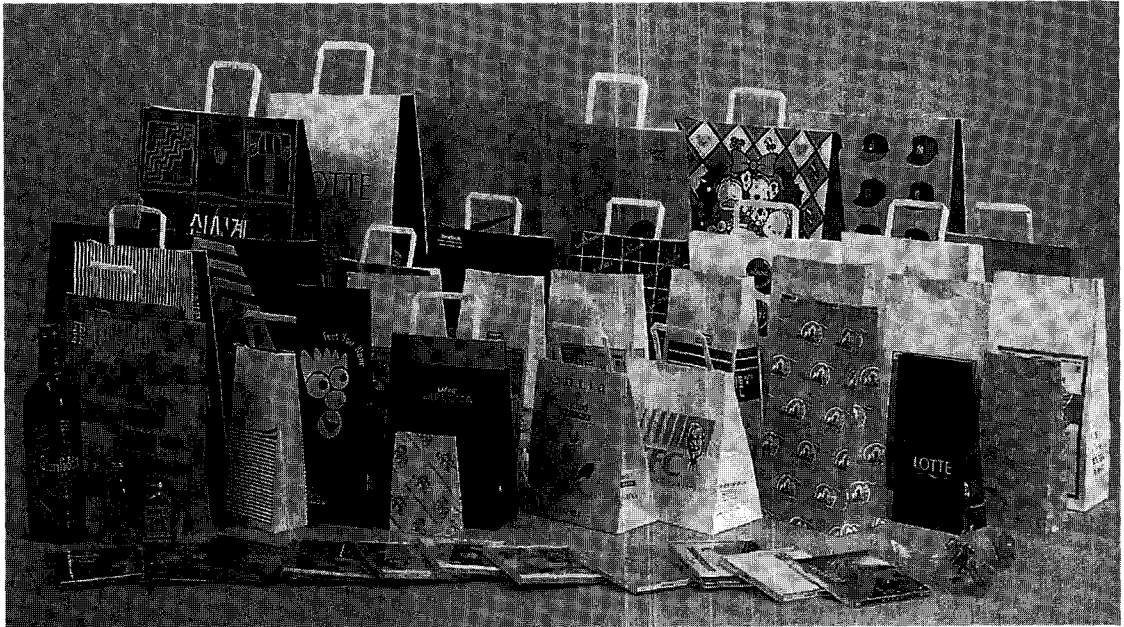
항상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의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쇼핑백 역시, 포장의 한 품목으로 국내 포장산업과 인쇄기술의 첨단화로 인해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72년 설립된 이래 다양한 종류의 종이쇼핑백, 쇼핑봉투, 산업용지대 등을 생산, 공급해 온 한국제대(주)는 현재 국내 자동백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 등 동남아, 유럽, 미국 등지에 수출을 통해 명성을 떨치고 있다.

“사장님의 의지가 우선 컸고, 전 직원이 포장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포장협회 가입에 긍정적이었습니다”라며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 한국제대(주) 제1공장 전경



▲ 한국제대(주)의 다양한 쇼핑백·지대

동기를 설명하는 김인곤 부사장은 그동안 연포장 업계 위주로 꾸려져 있던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자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한국포장협회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 부사장은 이번 회원가입이 업계와 정보를 교류하고 전 포장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백화점, 의류, 화장품, 서적, 패스트푸드, 제과, 제화, 금융기관 등 다양한 업종에 쇼핑백을 제조, 공급하고 있는 한국제대(주)는 대상분야가 다양한 만큼 이에 따른 다양한 기술력 보유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한국제대(주)는 동판인쇄와 수지판인쇄,

고무판인쇄 등 각 유저별로 인쇄적성에 따른 인쇄방법을 채택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끌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국제대(주)의 그라비아인쇄설비



유저가 아주 얇은 라인과 다양한 색상을 밝고 깨끗하게 뽑아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판인쇄가 적합하고 수량이 많고 시간상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도수가 많으면 수지판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대부분 유저 측에서 요구하게 되지만, 때로는 한국제대(주) 스스로가 권유하는 입장에 서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기업으로써의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고, 유통되었을 때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인쇄적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국제대(주)가 가진 경쟁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일환의 하나로 한국제대(주)는 자체 디자인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김인곤 부사장은 “큰 기업의 경우 기업 내 디자인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납품시 유저 측의 요구대로만 실행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 이하 규모의 기업의 경우는 자체 디자인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라면서 자체 디자인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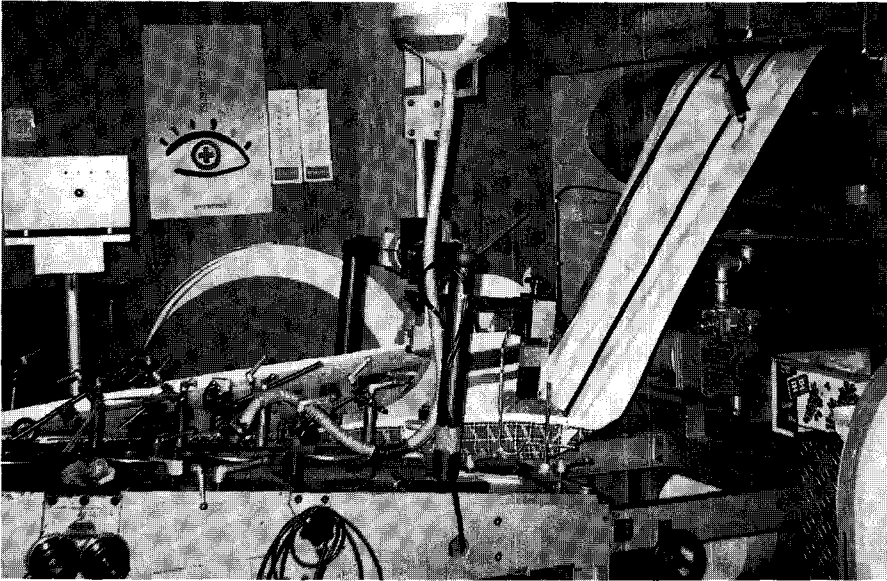
아직까지도 포장과 포장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더 이상 거론할 바도 아닐만큼 허다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국제대(주)에서 생산하는 쇼핑백의 경우도 이러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쇼핑백하면 단순히 상품을 담아 운반하는 정도의 기능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광고 효과란 일반 패키지와 동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는 김 부사장의 설명처럼 쇼핑백 역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제대(주)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진작 인식하고, 좀 더 완벽한 품질을 위해 1공장에서는 제



▶ 한국제대(주)의 플렉소 인쇄 시스템



◀ 한국제대(주)의 제대기 설비

대업무를 2공장에서는 인쇄업무를 진행, 일반적인 쇼핑백생산업체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취재하는 내내 원자재가 들어오고 제품의 반출이 반복되는 등 활발한 운영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한국제대(주)는 11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복지에도 큰 배려를 하고 있다.

직원자녀 학자금 융자, 연금, 의료보험 등은 기본이고, 상해보험과 우리사주운동 등을 펼쳐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 애사심을 키울 수 있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우회 활동을 통해 직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사간의 대화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전체 생산량 중 수출의 비율이 1%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국제대(주)는 그간 일본, 동남

아 등지에 적은 물량이남 수출을 하면서 시장성과 각 국별 영업전략을 쌓아두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새 천년의 첫해인 2000년부터는 수출물량을 늘려가며 쇼핑백 및 지대생산업체 중 국내 최고의 자리를 굳힘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그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곧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제대(주)의 쇼핑백을 한눈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감각을 갖춘 기업으로의 재도약에 여념이 없다.

꾸준함과 성실함을 엿볼 수 있는 기업 한국제대(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다부진 도약에 항상 성공의 일로만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

윤지은 기자